

## 부모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Spousal Attachment, Spousal Caregiving, and  
Parental Caregiving Behaviors on Preschoolers' Parental Representations\*

우수정(Sujung Woo)<sup>1)</sup>

이 영(Young Lee)<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pousal attachment, spousal caregiving, and parental caregiving behaviors on children's parental representations. One hundred and fifteen preschoolers (72 boys and 43 girls, aged between 4-5 years old) and their fathers and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and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Brennan, Clark, & Shaver, 1998), the Caregiving Questionnaire (Kunce & Shaver, 1994), and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Rohner, 199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 conclusion, parents' spousal attachment, spousal caregiving, and parental caregiving behaviors have influenced on children's parental representations.

**Key Words** : 배우자 애착(spousal attachment), 배우자 보살핌 행동(spousal caregiving), 자녀양육행동  
(parental caregiving behaviors), 부모 표상(parental representations).

### I. 서 론

인간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맺게 되는 관계는 부

모자녀관계이다. 이렇게 시작된 가족 안에서 사  
람들은 다른 사회관계와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살아

\* 본 논문은 2011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sup>1)</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up>2)</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jung Woo,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propersue@naver.com

가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과 위안이다. 최근 들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역할의 수행보다는 친밀감 충족의 욕구가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가족관계를 정서적 유대관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정서적인 부모-자녀관계 맥락에서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에 대한 중심 개념을 제공해 준다. 애착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이다(Bowlby, 1969/1973).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관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아의 양육자와의 경험이며, 이러한 양육의 질은 관계의 질적 조직화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하게 된 외부세계와 다른 사람들, 자신,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내적실행모델이라고 한다(Bretherton, 1985; Waters & Waters, 2006). 생애초기 유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양육자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조직해 나가게 된다. 이때, 부모에 대해 형성한 내적실행모델은 자신에 대한 내적실행모델 형성에 영향을 준다(Bowlby, 1988). 즉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내적실행모델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반면, 주양육자로부터 무시나 거절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은 이후 발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내적실행모델은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Bowlby의 애착이론의 핵심적 전제는, 애착관계 형성의 기본적 추진력이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제공될 지라도 그 유대는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착이론에 의해 부모양육행동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한 Bowlby(1982)는 유아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어머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와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애착발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이에 반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머니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애착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Cowan, 1997).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을 함께 살펴 본 연구들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유사하게 형성된다는 연구결과(Colin, 1996; van IJzendoorn & De Wolff, 1997)와 아버지의 민감성과 영아-아버지 애착 간 관계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어머니 애착 간 관계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또한, 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서로 다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에(Verschueren & Marcoen, 1999), 유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을 구분하여 비교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 유아가 부모의 양육을 통해 형성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 표상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신혜원, 2004). 유아가 형성하는 부모 표상은 부모에 대한 표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에 대한 표상 그리고 이후 형성하게 되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유아의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가족맥락 안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Bowlby, 1969/1982; Byng-Hall, 1999). 특히, 유아의 부모 표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가족맥락 속에서 부부관계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elsky (1984)는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Belsky(1981)에 의하면 부부관계는 양육지원의 일차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체계이다. 친밀한 부

부관계는 자녀에 대해 온정성, 반응성, 지지, 민감성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녀양육의 질을 향상시킨다(Floyd, Gilliom, & Costigan, 1998). 이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조명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긍정적 결과가 부모자녀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스피로버(spill over)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부정적 상관을 보고하며 보상모델을 지지하는 연구결과(Brody, Pillegrini, & Sigel, 1986)도 있기에,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탐색하는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부관계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Belsky, Youngblade, Rovine과 Volling(199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게서 어머니보다 더 부부관계와 자녀양육 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Brody 외(198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부관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자녀양육행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 덜 긍정적이고 보다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보여주는 부부관계의 질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의 질에 대해서 애착 이론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wlby의 애착 이론을 기초로 성인유대관계모델(adult pair-bond relationships model)을 제시한 Hazan과 Shaver (1994)는 친밀한 성인들 간의 상호유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애착 및 보살핌과 성적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성인

들의 낭만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과 더불어 애착체계, 보살핌 체계의 3가지 행동체계의 융합이 필요하다(Ainsworth, 1989; Shaver, Hazan, & Bradshaw, 1988). 이들 행동체계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일차적인 기능(예 : 보호와 지지를 추구하는 애착, 지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보살핌, 성적 기능)을 하지만, 한 체계의 행동특성은 또 다른 체계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친밀한 유대관계인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애착, 보살핌, 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 초반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적 매력력이 중요할지라도 관계가 지속되어 갈수록 애착과 보살핌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는 성적 흥미가 사라진 후에도 부부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Ainsworth, 1989).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이들 부부관계의 질에 보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애착과 보살핌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애착과 부부관계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예 : 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이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으나, 이에 비해 관계만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보살핌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애착 관련연구들이 애착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살핌체계 역시 애착유대를 형성하는 통합적 구성요소이다(Kunce & Shaver, 1994). 보살핌 행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지지, 지원행동과 유사하며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보살핌 행동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대방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며,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안식처의 역할도 한다(Collins

& Feeney, 2000). Kotler(1985)는 부부의 상호보살핌이 성격이나 건강, 환경적 요소보다도 부부관계에서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인 보살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친밀하고 안정적인 부부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Feeney, 1996). 이에,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애착과 배우자 보살핌 행동을 통한 부부 유대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일련의 연구들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을 예측하고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맥락 안에서의 부부관계와 자녀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준다. Cummings, Davis와 Campbell(2000)도 가족관계 속에서 유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 과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Shamir, Du Rocher-Schudlich와 Cummings(2000)는 유아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은 아버지-유아관계, 어머니-유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가족맥락 속에서 부모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부모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유아 모두가 자신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애착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애착이론의 기본가정을 토대로 하여, 유아기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유아의 부모 표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방정

식 모형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와 더불어 부부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후 부모교육과 가족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문제>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은 아버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은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부모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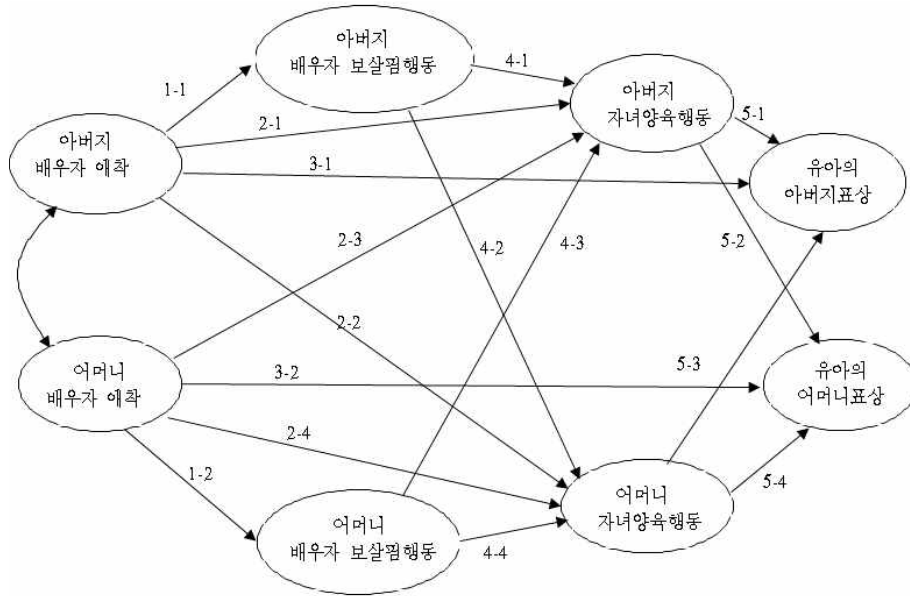
- 4-1. 아버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아버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4.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부모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1.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3.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4.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부모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6-1.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6-2.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그림 1〉 이론적 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5곳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115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230명(115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의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부부들의 경우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 인지구조의 조절 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의 내적실행모델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Kobak과 Hazan(1991)이 주장한 점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애착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단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케이스는 제외시킨 것이다. 그리고 만 4~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만 6세 유아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경험이 확대되면서 유아의 내러티브 표상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인다는 선

행연구결과(민성혜·신혜원·이영, 2004)에 의한 것이다. 또한 유아와 그들의 부모가 모두 연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한 부모 가정이 아니면서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족들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은 60개월(만 5세)이었고, 남아가 72명(약 63%), 여아가 43명(약 37%)이었다. 연구대상 유아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5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2세였으며, 부모 모두 30대가 아버지는 63%, 어머니는 80%를 차지하여 주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4%이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4%였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자영업이 27%, 사무직이 25%, 전문직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44%

를 차지하였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사무직이 약 17%, 전문직이 약 14%로 나타났다. 가계 월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약 24%였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대가 약 22%, 300~400만 원대가 약 21%였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른 2010년 2/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391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통계청, 2010), 본 연구대상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도구

### 1) 부모표상

유아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 MSSB)를 이영, 민성혜, 신혜원과 유영미(in press)가 번안한 Korean-MacArthur Story-Stem Battery (K-MSSB)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인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4개의 이야기 도입부로 이루어져 있다. 14개의 이야기는 주스 얼지르기, 뽀빠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의 두통, 엄마야빠에게 선물, 셋은 너무 많아요, 뜨거운 국 냄비, 잃어버린 열쇠, 사탕 훔치기, 여행 떠나기, 채회, 약상자, 바위 오르기, 배제, 과자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MSSB는 연구자가 유아에게 각 이야기를 제시하면 유아가 내러티브를 완성해 나가는 개방적인 방법(open-ended)으로 실시된다. 연구자는 유아가 완성한 내러티브 내용과 유아가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분석하여 유아의 내적표상을 평정한다.

점수화 방법은 Robinson, Mantz-Simmons, Macfie, Kelsay, Holmberg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의 코딩 매뉴얼(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을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와 민현숙(in press)이 번안한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K-MN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은 긍정적 표상과 부정적 표상, 그리고 혼육적 표상의 3개 범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표상범주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코딩하였다. 유아의 부모표상 점수는 전체 14가지 이야기에서 해당 표상범주가 코딩된 빈도의 평균을 구하였다. 평균점수는 0~1점의 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범주의 표상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MSSB 코딩 매뉴얼을 제작한 JoAnn Robinson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K-MSSB 연수를 이수하였고, K-MSSB 연수를 이수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과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와 평정자 간 신뢰도는 어머니 표상의 경우  $r = .94$ 였으며, 범주별로는 긍정적 표상  $r = .81$ , 부정적 표상  $r = .73$ , 혼육적 표상  $r = .90$ 이었다. 아버지 표상의 경우  $r = .94$ 였고, 범주별로는 긍정적 표상  $r = .77$ , 부정적 표상  $r = .80$ , 혼육적 표상  $r = .90$ 이었다.

### 2) 언어성 지능검사

유아의 이야기 완성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아에게 무리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유아의 언어 지능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혜원, 박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 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 K-WPPSI) 중 '언어성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도구는 상식(27문항), 이해(15문항), 산수(23문항), 어휘(25문항), 공통성(20문항)의 5가지 소검사로 이루어

저 있으며, 각각의 소검사에 따른 환산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환산점수의 범위는 1점 ~ 18점이며, 각 소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해서 산출된 언어성 지능 점수를 토대로 하여 경계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 점수 79점 이하(박혜원 외, 1995)의 유아를 판별하기 위해 본 검사를 사용하였다.

### 3) 배우자 애착

성인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성인애착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 ECRS)를 김광은과 이위갑(2005)이 번역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을 두 개의 기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에서의 애착을 측정하며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rennan 외(1998)의 원 검사 도구에서는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결과 3점과 4점의 구분이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각 차원별로 18점부터 90점으로 총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애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불안 각 차원의 불안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어머니의 경우 회피차원은 .86, 불안차원은 .83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회피차원은 .87, 불안차원은 .80이었다.

### 4) 배우자 보살핌 행동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성인들의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보살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Kunce와 Shaver(1994)가 개발한 보살핌 척도(Caregiving

Questionnaire)를 이희숙(2008)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근접성, 민감성, 협동성, 강압적 보살핌의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은 긍정 4문항, 부정 4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부모님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강압적 보살핌 행동요인을 제외하고 배우자에 대한 반응적 보살핌 행동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근접성(8문항), 민감성(8문항), 협동성(8문항)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대해서는 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각 요인별로 8점부터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인 보살핌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어머니의 경우 근접성이 .80, 민감성이 .70, 협동성이 .75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근접성이 .80, 민감성이 .75, 협동성이 .74였다.

### 5) 자녀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91)의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 PARQ)를 황혜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Q)는 수용차원과 거부차원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수용차원을 나타내는 온정/애정(20문항)과, 거부차원에 해당하는 공격성/적대감(15문항), 무시/무관심(15문항), 모호한 거부(10문항)로 모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지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문항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분화되지 않은 거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높았던 모호한 거부 영역을 제외한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세 영역의 총 5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어머니의 경우 온정/애정 영역이 .86, 공격성/적대감 영역이 .76, 무시/무관심 영역이 .83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온정/애정 영역이 .88, 공격성/적대감 영역이 .85, 무시/무관심 영역이 .81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0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5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 115명과 그들의 부모들 115쌍이었다. 원장 및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부모들에게는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을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들에게 배포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봉투에는 질문지와 더불어, 질문에 대한 설명, 비밀보장 및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였다.

질문지를 배포하고 1주일 후 유치원을 방문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며, 매 주 단위로 한 달간 질문지를 수거하러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들에게 총 434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55부가 회수되어 5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에는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질문지 작성을 하지 않거

나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관련 질문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가 있었다. 회수된 질문지들 가운데 질문지를 끝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아의 경우, 각 교육기관에 마련된 빈 교실에서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유아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생일파티 이야기를 시작으로 14개의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휴식시간을 가진 후 언어성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성 지능검사 결과에서 경계선 범주 이하에 해당하는 유아 3명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부모 115쌍과 그들의 자녀 11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각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관련변인들 간의 이론모형을 검증하고자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

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chi^2/df$  비율(Q값)을 이용한 표준카이자승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평가기준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RMSEA)과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 CFI)를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친밀한 성인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인 애착과 보살핌 행동을 통한 부모관계의 질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때 유아의 성에 따라 부모표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아의 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부모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 및 자녀양육행동과 유아의 부모 표상의 각 척도들이 이론변인을 유의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카이자승값은 1.45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가 나왔으며, RMSEA는 .06으로 역시 적합한 수준을 보였으며, TLI는 .91, CFI는 .93으로 나와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이론적 모형의 검증

다음으로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 및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 및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고자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TLI = .90, CFI = .92이며, RMSEA = .06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카이자승값과 자유도 간의 비가 1.52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이론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배우자 애착은 아버지 배우자 보살핌 행동( $\beta = -.98, p < .001$ )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배우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	$\chi^2$	df	$\chi^2/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260.92	179	1.45	.91	.93	.06

〈표 2〉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df	$\chi^2/df$	TLI	CFI	RMSEA
이론적 모형	290.51	191	1.52	.90	.92	.06

자 애착은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 $\beta = -.90, p < .001$ )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배우자 애착에 있어서 회피와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덜 민감하고, 근접성을 덜 추구하였으며 덜 협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배우자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배우자 보살핌 행동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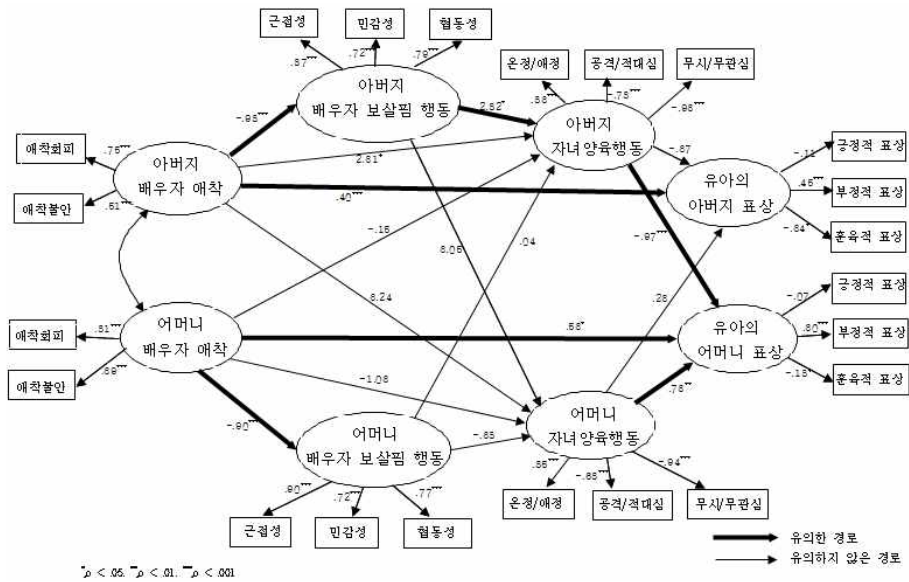
셋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부모 표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beta = .40, p < .05$ ). 그리고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 = .53, p < .05$ ). 즉 아버지의 애착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애착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 역시 더 많이 보였고, 긍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은 덜 보였다. 이는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유아도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넷째,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아버지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아버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beta = 2.82, p < .05$ ), 어머

니의 자녀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은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직접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에게 반응적인 보살핌 행동을 나타낼수록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으며,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무시, 무관심한 양육행동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아버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섯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beta = -.97, p < .001$ ). 즉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어머니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표상하였고 더 혼육적으로 표상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73, p < .001$ ). 하지만,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섯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



〈그림 2〉 이론적 모형의 경로계수

지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의 경로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의 37%, 유아의 어머니 표상의 74%를 설명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보살핌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애착유형에 따른 보살핌 행동의 경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Collins & Feeney, 2000; Feeney, 1996; Feeney & Collins, 1998; Fraley & Shaver, 1998; Kunce & Shaver, 1994; Simpson, Rholes, & Nelligan, 1992)와 일치한다. 즉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상대방에게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반응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였으며,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잘못 해석하여 반응적이지 못한 보살핌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협력적인 보살핌 행동을 하는 기저에는 자신이 지닌 애착차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회피차원이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 있는 불안차원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살핌 행동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 안정적인 애착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친밀한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가까이에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보살핌 행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에 따른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자녀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예 : 전현진 · 박성연, 1999; 전효정, 2003)를 토대로 부모의 배우자 애착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예측한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에 의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이 서로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을 이루는 주요변인임을 감안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예 : Belsky, 1984;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배우자 애착이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가지고서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은 유아의 부모 표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유아도 부모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더 많이 보인 결과는, 다시 말해서 부모가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 유아도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과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불안정 애착이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Roelofs, Meesters와 Muris(200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지닌 배우자 애착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넷째,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이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에게 민감하고 근접성을 추구하며 협동적인 반응적 보살핌 행동을 나타낼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였으며, 공격적이고 무시/무관심한 양육행동은 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에 비해 부부관계에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역할 촉진(parenting facilitation)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부모역할 촉진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있기에 아버지의 부모역할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휘숙, 2008).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도 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으로써 부부관계와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스피로버 효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아버지에게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부부관계가 자녀양육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예 : Belsky et al., 1991; Cowan & Cowan, 1992)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 보살핌 행동이 자녀양육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적 영향이 자녀양육행동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부부관계의 부정적인 부분을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으로 보상하려 하거나 또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부정적 관계를 보상하기 위해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전 연구들의 비일관적인 결과와도 연관 지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보다 더 관계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둔다고 보았을 때(정옥분, 2007), 자녀와의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시 된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유아의 어머니 표상에는 직접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 표상에는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온정적,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어머니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표상하였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온정/애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어느 한 쪽 부모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표상형성에 미치는 효과

를 중재하여 보상한다는 Bretherton(1985)의 주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유아는 부모에 대한 표상을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으며 이 때, 어느 한 쪽 부모만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버지의 자기보고식 양육행동 평가에 있어서 아버지가 단순히 유아와 함께 있었던 시간적 양만으로도 높은 자녀양육참여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 과연 질적으로도 높은 양육참여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Kwon과 Roy(2007)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직접적 참여나 책임수행보다는 자녀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접근 가능한 소극적 양육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가 아버지와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이강이(2007)의 연구결과와, 아버지의 질적인 참여만이 유아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Lamb, 2002; Pleck & Masciadrelli, 2004)와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에 대한 유아의 표상은 부모와의 경험에 대해 유아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의 부모 표상 평가는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닌 유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모에 대한 표상이다. 즉 유아의 주관적인 지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유아가 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역으로 아버지의 무

관심하거나 과도한 관여에 대해서도 유아가 긍정적으로 표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양육행동과 유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표상이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수용적 양육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표상하게 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먼저 본 연구대상의 유아는 평균 만 5세로서 유아기 중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행동반경의 확장과 자율성, 주도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와 한계설정을 보다 강하고 빈번하게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어머니들은 이 시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 유아에 비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는 행동을 나타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가 지각한 온정/애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표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유아가 인형놀이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화난 말투와 야단이 자주 등장한다면, 체벌(예 :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때찌 때찌했어’라고

말하며 인형끼리 반복적으로 부딪히며 묘사하는 경우)이 있을 경우, 또는 유아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예 : 뽀빠가 보이지 않을 때, 유아가 엄마에게 가서, ‘뽀빠가 없어졌어요’라고 말하고 난 뒤, 유아인형은 뽀빠를 찾으러 나간다. 엄마인형은 그대로 서 있다)와 같이, 어머니가 거칠고 처벌적인 말투를 보인 경우나 무력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수동적 거부를 보인 경우 등이 보이면 평정자는 분석 시 부정적 표상으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과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표상 간 격차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유아에 대한 발달지식과 부모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 이를 뒷받침 해줄 사회적 지원 면에서 불충분한 여건은 아니었는지, 이로 인해 유아에 대한 마음과는 달리 양육행동이 온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음에도 자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의 경우 아버지들에 비해 관계성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과 유아의 부모 표상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린 유아에 비해 따뜻한 보호와 양육보다는 훈육과 제한이 많아지고, 발달의 제 측면에서의 높은 성취를 요구받는 유치원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행동 특성을 재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해 본다.

여섯째, 부모의 배우자 애착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부부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주요변인으로서의 배우자 애착과 배우자 보살핌 행동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유아의 부모표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50% 이상이 취업모였다는 점과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컴퓨터와 대중매체에 대한 과도한 노출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의 감소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내적실행모델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되던 양육행동의 역할에 대해 주의깊게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관계경로를 고려하여 부모의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유아의 부모표상에 영향을 주는지 관련변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MSSB는 질문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유아의 무의식적인 내면세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면접시행과 코딩절차에 따른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던 점으로 인해 표집 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서울지역 중류층 정상집단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표집 수와 다양한 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데 있어서 정서적 관계에 중요성을 두고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어머니 표상 간의 관계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나온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며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관계 외에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변인들과의 상호관계성에 기초하여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비록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자기보고 연구가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지지될 수 있을지라도 가족관계라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관찰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 맥락 안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영향력을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유대관계 속에서 살펴 보는데 있어서 추상적인 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의 역할과 영향을 변인들 간의 모형적 관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 및 자녀양육행동과 부모 표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온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불어 가족 맥락 안에서의 동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은 · 이위갑(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25-239.
- 민성혜 · 신혜원 · 이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박혜원 · 박금주 · 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신혜원(2004). 3~4세 유아 애착행동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이(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비교. **한국생활과학지**, 16(3), 455-463.
- 이 영 · 민성혜 · 신혜원 · 유영미(in press). **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 이 영 · 민성혜 · 신혜원 · 유영미 · 민현숙(in press).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 이희숙(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4), 109-126.
- 전현진 ·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70.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메커니즘 :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옥분(2007). **전 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http : //kostat.go.kr](http://kostat.go.kr)에서 2010년 8월 7일 인출.
- 황혜정(1997). 유아의 정서 · 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3-2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2), 487-49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Attachment* (2nd ed.).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3-35.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rody, G. H., Pillegrini, A. D., & Sigel, I. E. (1986). Marital quality and mother-child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291-296.
- Byng-Hall, J. (1999). Family and couple therapy : Toward greater securit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25-645). New York : Guilford Press.
- Carm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3), 257-278.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7*(9), 1131-1143.
- Colin, V. L. (1996). *Human attachment*. New York : McGraw-Hill.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owan, P. (1997). Beyond meta-analysis : A plea for a family systems view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601-603.
- Cowan, C. P., & Cowan, P. A. (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New York : Basic Books.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5), 1015-1024.
- Cummings, E. M., Davis, P. T., & Campbell, S. B. (2000). *Development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New York : Guilford.
- De Wolff, M.,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Feeney, B. C., & Collins, N. L. (1998). An attachment/caregiving perspective on social support exchanges in intimate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Saratoga Springs, NY.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4), 401-416.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198-1212.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tler, T. (1985). Security and autonomy within marriage. *Human Relations, 38*(4), 299-321.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205-237). London : Jessica Kingsley.
- Kwon, Y., & Roy, K. M. (2007). Changing social expectations for work and family involvement among Korean fathers. *Journal of Comparative*

- Family Studies*, 38(2), 285-305.
- Lamb, M. E. (2002). Infant-father attachments and their impact on child development.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 S. residential fathers :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 Wiley.
- Robinson, J., Mantz-Sinmons, L., Macfie, J., Kelsay, K., Homeberg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 Roelofs, J., Meesters, C., & Muris, P. (2008). Correlates of self-reported attachment (in)security in children : The role of parental romantic attachment status and rear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4), 555-566.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hamir, H., Du Rocher-Schudlich, T., & Cummings, E. M. (200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Unpublished manuscript.
- Shaver, P. R.,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68-99).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van IJzendoorn, M. H., & De Wolff, M. S. (1997). In search of the absent father-Meta-analyses on infant-father attachment : A rejoinder to our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68(4), 604-609.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ners :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Child Development*, 67(1), 183-201.
- Waters, H., & Waters, E. (2006). The attachment working models concept : Among other things, we build script-like representations of secure base experience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8(3), 185-197.

2011년 6월 13일 투고, 2011년 9월 7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